

3/24(목) 삼상 23-26장 풍랑에도 순항하는 자, 다윗

사울은 권력을 가졌지만 초조하고 두렵습니다(18:8,12).
하나님을 좇지 않고 사람 뒤를 쫓느라 기력을 소진합니다(19장-27:4).
그는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커녕 편을 가룹니다(22:7-8).
적군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는 불순종했던 그가(15:7-9),
정작 제사장과 가족들, 그들의 가족을 <진멸>합니다(22:18-19).

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합니다(22:5, 23:2,4,12).
체제 내에서 소외된 자들이 찾아왔을 때, 다윗은 그들을 품습니다(22:2).
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못 본 체 하지 않습니다(23:2-3).
선을 먼저 넘은 것은 사울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반응합니다(24,26장).
자신을 거부한 이스라엘이지만 다윗은 자기 뿌리를 잊지 않습니다.
(22:5, 23:12,19,24:1, 27:8)

다윗은 안전과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지 않고(14:52),
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사무엘과 제사장을 먼저 찾았습니다(19:18,21장).
다윗은 늪에서 <골리앗의 무기>를 찾게 됩니다(21:9, 17:50-51참고).
동행한 이들과 함께 성소에 차려진 <진설병>을 먹습니다(21:6, 레24:5-9 참고).
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다윗을 먹이시며 승리케 하실 것을 암시합니다.

다윗은 폭풍 같은 도피 생활 속에서도 순항합니다.
하나님은 나발을 맞아 사울처럼 행하려는 다윗을 막으시고 구하십니다(25:26-32).
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결국은 사울에게 항복과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(24:20-21, 26:25).
사람은 매번 다윗을 쫓고 괴롭게 하며 배신했지만
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습니다.

“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
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
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(시142:4-5)”
“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(23:14)”

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?

- ①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보이시고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고 있습니까?
- ② 선을 넘은 사람들 앞에서 요동칩니까, 잠잠히 하나님께 묻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삼상 23-26장